

항생제 최소화 노하우·경험 공유... “내성 저감 노력 함께”

제3차 MFDS GCFA

‘원헬스’ 기반 항생제 활용 논의 박용호 서울대 명예교수 기조연설 내성관리 강화 등 지원사업 소개

항생제 내성이 ‘조용한 팬데믹’으로 불리며 전세계적으로 보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항생제 내성 최소화를 위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제3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MFDS GCFA)’를 열고 있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국제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원헬스(One Health)’ 개념에 기반한 효율적인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원헬스란 환경, 동식물, 사람의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12일 서울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제3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청하 수습기자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는 박용호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노력 ▲식품, 인체, 환경 등 항생제 내성 실태 현황과 저감 전략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인 13일에는 ▲항생제 내성 저감 및 분석·추적 최신 기술 ▲FAO가 몽골, 네팔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이 소개된다. 첫날인 12일에는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학 명예교수가 ‘동물, 사람 그리고 식품에서의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의 기조 연설을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경고를 했다. 이날 박용호 교수는 항생제 사용이 특히 식용 동물 생산에서 이점을 가진다며 “항생제는 동물 생존율을 높이고 동물 폐기물은 줄여주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농업이나 축산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항생제 내성균의 확

산은 ‘조용히 밀려오는 쓰나미’와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동물에서 주요한 내성균이 사람에서도 발견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 인체 내 감염, 지역사회 간의 잦은 이동 등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으며 병원균을 매개로 한 식품 질환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호 교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항생제 저감을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일동후디스 ‘트루맘’ 아기모델 모집

일동후디스가 2024년 트루맘 달력 제작을 위한 아기 모델 모집 이벤트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육아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는 24일 까지 스튜디오에서 찍은 아기의 ‘100일·200일·돌’ 사진 중 하나를 촬영 이유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뒤 트루맘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신청이 완료된다.

최종 선발된 14명의 아기는 2024년 트루맘 달력 모델의 기회가 주어지며,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과 간식이 포함된 ‘트루맘 선물박스’와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내달 화장품 소재 효능 평가 서비스

을지대 피부생명과학연구소 MOU 기술교류 등 서비스·사업 협력 확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을지대학교 피부생명과학연구소와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을지대 생명과학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화장품 소재의 효능 평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10월부터 화장품 소재의 효능 평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자 간에 기술교류, 프로젝트의 공동수행, 공동마케팅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왼쪽)와 이창석 을지대 피부생명과학연구소장이 지난 달 29일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및 영업 분야에 대해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의 발굴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관행은 잔인하고 불필

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3년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화장품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의 판매 금지 규정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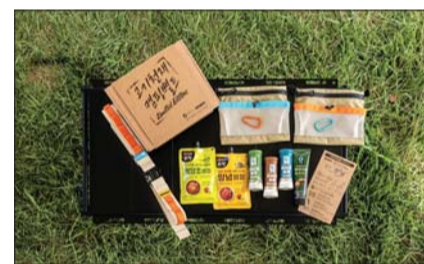
이후 여러 국가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비동물 실험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동물대체 시험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오가노이드 기반의 시험법이 동물대체 시험법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미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피부질환 및 탈모, 발모 관련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

기반의 화장품 효능 평가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장품 효능 평가 수행 연구와 관련 서비스 및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을지대 피부생명과학연구소는 을지대 미용화장품학과 교수들이 개설한 연구센터로써, 화장품 바이오 효능 및 제형약리를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화장품 기업체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화장품 효능 평가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화장품 효능 평가수행연구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청정원X고아웃 고기천재 캠핑벨트 /대상

청정원-고아웃코리아 ‘고기천재 캠핑벨트’ 완판

대상(㈜)의 청정원이 고아웃코리아와 협업해 선보인 기획상품 ‘청정원X고아웃 고기천재 캠핑벨트’가 캠핑족들의 입소문을 타고 연일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청정원X고아웃 고기천재 캠핑벨트’는 ▲순창 양념쌈장 ▲순창 청양초쌈장 ▲명이나물 생(生)와사비 ▲허브맛솔트 3종(와사비맛/순한맛/마늘&양파맛) 등 총 6종의 고기전용 제품과 ▲투패널 파우치 ▲톨벨트 ▲카라비너 등 4가지 변형 기능을 갖춘 캠핑벨트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유통업계 신제품

애경산업 리큐 제트 ‘프로 포인트 샷’

애경산업이 섬유의 일상생활 속 ‘부분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품을 선보인다.

생활부터 기업애경산업의프리미엄세탁제 브랜드 리큐 제트(ZeT)는 ‘프로 포인트 샷’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밀도가 높아 쫌쫌하게 생성된 거품이 각종 섬유 오염에 강하게 부착되면서 얼룩을 제거한다. 스프레이 타입으로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양을 분사할 수 있으며 파워 효소를 함유해 소매, 옷깃 등에 깊게 밴 피지 얼룩부터 음식물 오염, 화장품 얼룩까지 다양한 생활 얼룩을 세척할 수 있다. /이청하 수습기자

생명공학 ‘아-태 감염병 실드 포럼’ 개막

베트남·인도 등 8개국 대표자 참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2~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실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실드(APIS)는 아-태지역 신변종 감염병 확산 방지와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구 협력 체계이다.

이번 포럼에는 APIS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8개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의 감염병 대표자들이 참석해 팬데믹 전후의 감염병 연구현황

및 문제점, 미비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 국가 또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감염병 우선순위를 발굴하여 다음 팬데믹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생명공학연구원 류종민 박사는 “지금까지 아시아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감염병 대응 지원은 선진국이 주도하며 지원대상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중저소득 국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엑세스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

美 큐라페이션트 신주 지분 확보

팜젠사이언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 미국 기업 엑세스바이오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큐라페이션트의 신주 지분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기업 큐라페이션트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환자와 의사, 병원을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 플랫폼 ▲미국 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예방, 진단, 처방, 치료를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할 계

획이다.

특히 미국 기업 큐라페이션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연방 정부가 부여하는 FedRAMP 인증에서 ‘High’ 및 ‘Agency Wide’ 등급을 받았다.

엑세스바이오 관계자는 “미국 내 헬스케어기업 중 유일하게 큐라페이션트가 높은 등급을 받아 큐라페이션트만이 미국 연방 정부 내 각 기관의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미국 공공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수습기자